

글로벌 전략 노트

Weekly takeaways(1/14일)

봉쇄를 넘는 전략, Global South와 녹색 기술

2025년 상해종합지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S&P500을 아웃퍼폼(동반 급락했던 2022년 제외 시). 올해도 상대적인 강세 기조를 유지 중. 2026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 역시 중국이 더욱 크게 상향되는 추세.

반도체/소부장, 제약 업종에 집중됐던 기술자립 테마주의 강세는 연초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이 시행(AI 를 국방 및 안보 인프라에 통합)되며 방산 기업으로 확산. 연말부터 하이난 봉관 시행(무관세 구역으로 지정), 이구환신 연장 등 다방면의 개혁/부양책이 더해지며 증시 테마가 확장되는 중.

증시 이익, 밸류에이션, 수급 등 펀더멘탈 조건도 양호. 중국의 대표 기술주를 지칭하는 China Dragons 7(Alibaba, Baidu, BYD, JD.com, Meituan, Tencent, Xiaomi)의 EPS 는 2025년 4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2026년 EPS YoY +11%).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PBR 밸류에이션 역시 글로벌 peer 대비 적정 수준에 위치.

외국인 투자자는 '정책 모멘텀, 가격 메리트, 경제 신뢰도 회복'이 확인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재개. 내국인 투자자의 증시 투자방향 역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 최근 확인된 '가계 예금의 증시 유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2026년 기술자립을 보완하는 거시적 테마는 소비와 투자. 이 중 투자는 부동산 시장 안정, 정부 주도 인프라 투자라는 변화에 더해, 최근에는 Global South 공략 성과도 확인 중.

중국은 녹색 기술(태양광, 풍력,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가격 결정권을 보유. 이를 무기로 신규 수출 시장인 Global South 를 장악하고, 이들 국가와 자원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가속화. 저렴한 녹색 기술과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자국의 기술 표준(스마트그리드, EV 충전 등)을 해당 국가의 인프라에 이식, 장기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려는 전략.

중국의 해외 녹색 투자는 2022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전체 누적 투자액의 86.9%(1981.7억 달러), 프로젝트 건수 중 82.4%(380건)가 2022년 이후 집행. 당시는 미국의 IRA 와 CHIPS Act 가 제정된 시기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서 독자적인 경제 블록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지정학적 생존 전략'이 가동된 것.

2024년 기준 중국의 해외 녹색 제조업 투자 금액 중 Global South 의 비중은 73.3%에 육박. 국가별로는 배터리 소재인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가 전체 약정 금액의 35.1%(cumulative)를 차지. 이는 니켈 원광 수출을 금지한 인도네시아에 현지 가공 시설을 구축하여,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함. 실제로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니켈 수입 의존도는 2022년 1월 3.98%에서 2025년 11월 61.9%로 급증하며 공급망 재편이 현실화.

자원 공급망 장악은 완제품 시장 선점으로 연결. 현지 생산 기반을 확보한 중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 자국 기술 표준을 선제적으로 이식하기 위한 전략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Global South 공략은 국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중국 수출 중 Global South(ASEAN, LatAm, Africa)의 비중은 투자가 급증하기 이전인 2021년 12월 25.4%에서 2025년 11월 현재 31.9%로 급증. 일대일로 참여국 기준으로는 51.2%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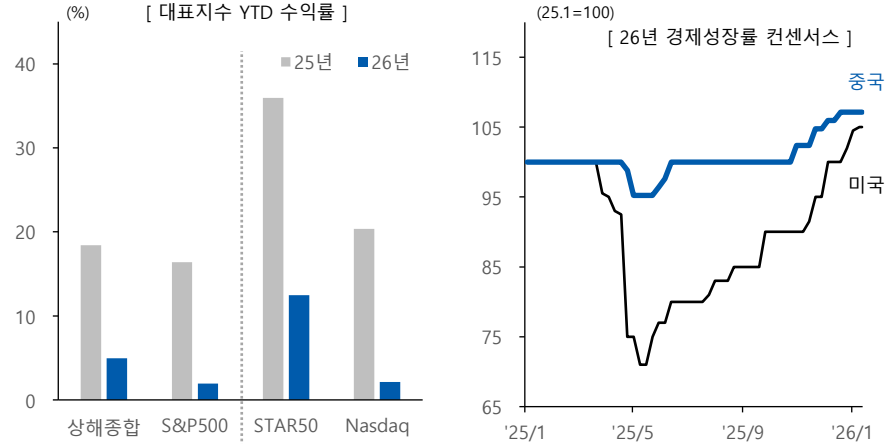
1) Global South 선점에 따른 Lock-in 효과를 향유할 기업인 Sungrow(300274 SZ, 태양광인버터/ESS), NARI Tech(600406 SH, 전력자동화설비), 2) Global South 시장 선점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BYD(1211 HK, 신에너지차), Great Wall Motor(2333 HK, 완성차)에 주목. 3)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인프라'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ETF는 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2845 HK).

Key Charts

2025년 중국 증시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 증시를 아웃 퍼폼. 올해도 상대적인 강세 기조를 유지 중. 2026년 경제성장률에 대한 눈높이 역시 중국이 더욱 크게 상향되는 추세.

반도체/소부장, 제약 업종에 집중됐던 기술자립 테마주의 강세는 연초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방산 기업으로 확산. 다방면의 개혁/부양책이 더해지며 증시 테마가 확장되는 중.

중국 증시는 2026년에도 미국을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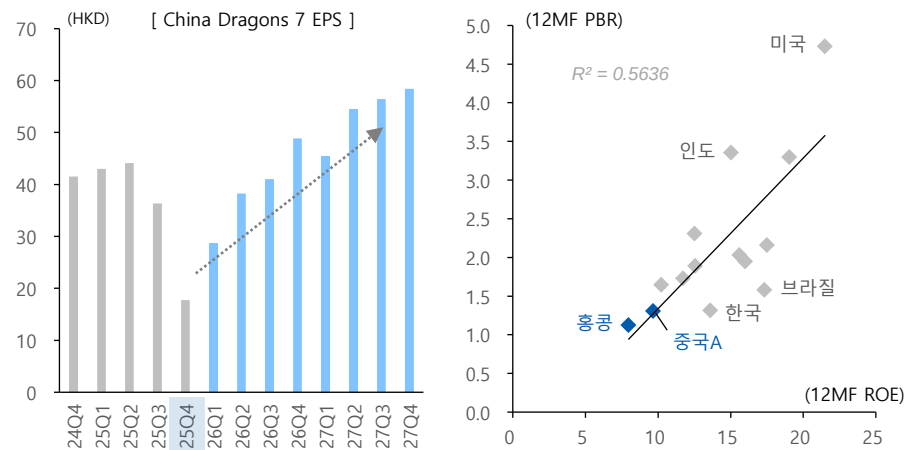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증시 이익, 밸류에이션, 수급 등 펀더멘탈 조건도 양호.

중국의 대표 기술주를 지칭하는 China Dragons 7의 EPS는 2025년 4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중국 기업들의 수익성을 고려한 PBR 밸류에이션 역시 글로벌 peer 대비 적정 수준에 위치.

대표 기술주의 이익은 25년 4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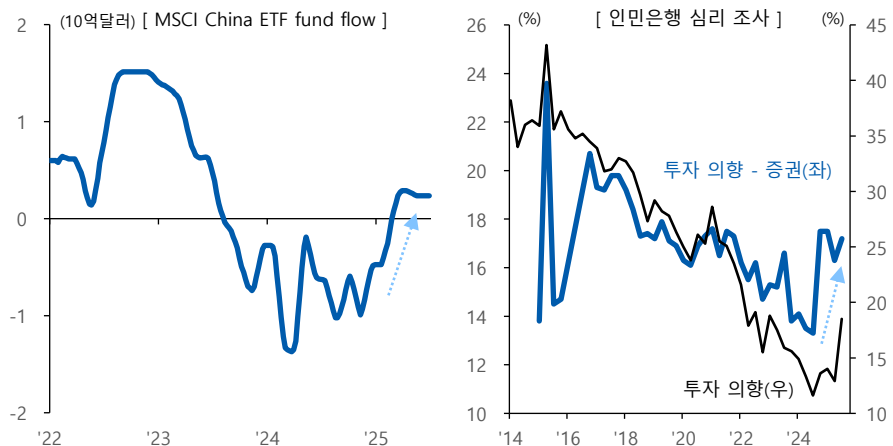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E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투자자는 '정책 모멘텀, 가격 메리트, 경제 신뢰도 회복'이 확인되고 있는 중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재개.

내국인 투자자의 증시 투자방향 역시 대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 최근 확인된 '가계 예금의 증시 유입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시사.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 증시 매수세를 재개. 내국인의 증시 투자방향도 대폭 상승



자료: Bloomberg,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ey Charts

중국의 해외 녹색 투자는 2022년 이후 급증하기 시작. 전체 누적 투자액의 86.9%가 2022년 이후 집행. 당시는 미국의 IRA와 CHIPS Act가 제정된 시기로, 미국의 기술 봉쇄에 맞서 독자적인 경제 불록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지정학적 생존 전략'이 가동.

2024년 기준 중국의 해외 녹색 제조업 투자 금액 중 Global South의 비중은 73.3%에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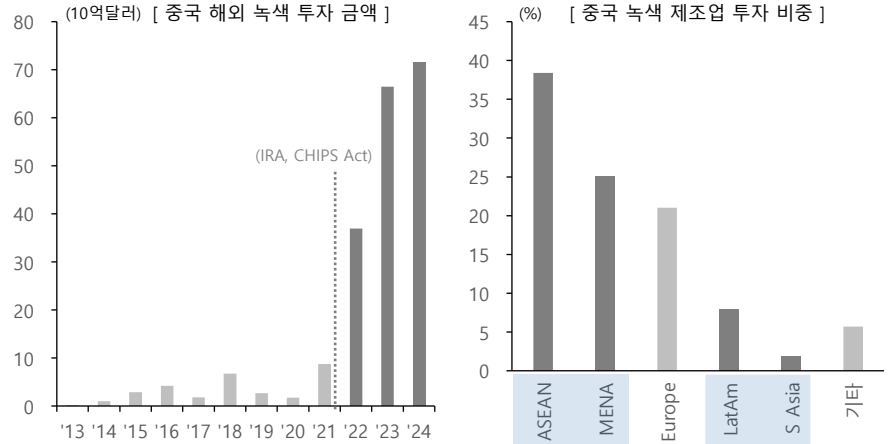
국가별로는 배터리 소재인 니켈이 풍부한 인도네시아가 전체 약정 금액의 35.1%를 차지.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함. 중국의 대 인도네시아 니켈 수입 의존도는 2022년 1월 3.98%에서 2025년 11월 61.9%로 급증.

자원 공급망 장악은 완제품 시장 선점으로 연결. 중국의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점유율은 90%에 육박. 선제적인 기술 표준 이식 전략이 성공한 것.

Global South 공략은 국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중국 수출 중 Global South의 비중은 2025년 11월 31.9%로 급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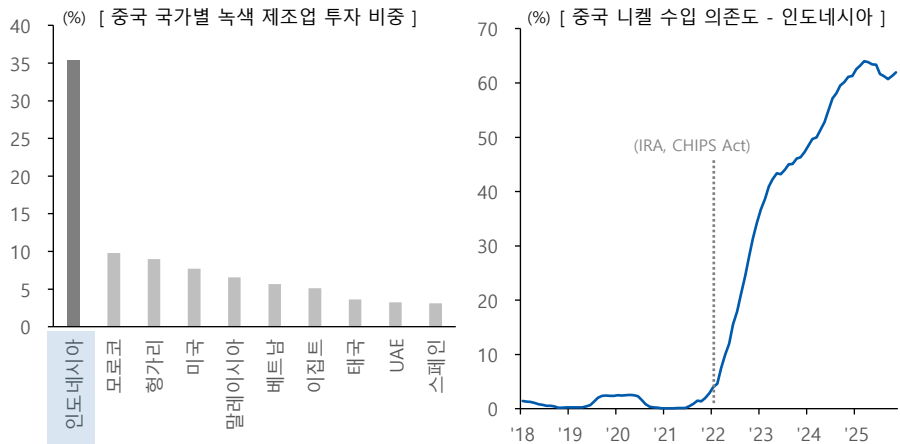
- 1) Global South 선점에 따른 Lock-in 효과를 향유할 Sungrow, NARI Tech, 2) 시장 선점에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BYD, Great Wall Motor. 3) 밸류체인을 포괄하는 Global X China Electric Vehicle and Battery ETF(2845 HK)에 주목

중국은 미국의 봉쇄 정책에 대항하기 위해 Global South 공략을 가속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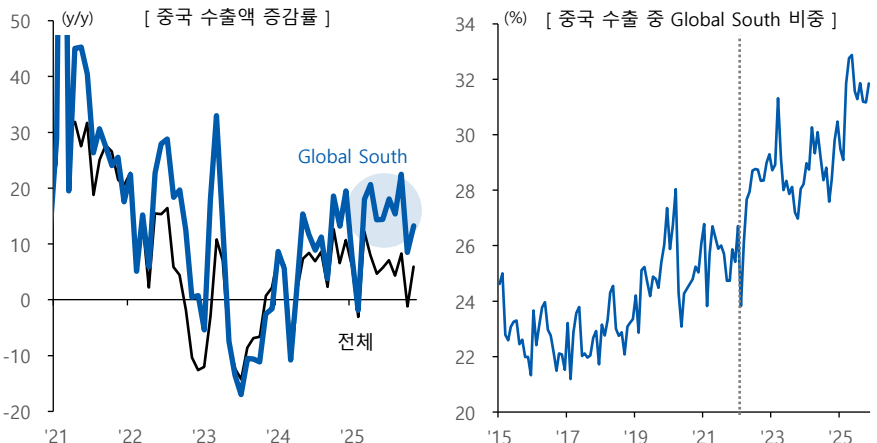
자료: netzeropolicylab,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인도네시아는 중국의 공급망 재편 및 선점 효과가 잘 드러나는 사례



자료: netzeropolicylab,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Global South 공략은 국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



자료: CEIC,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작성자:민병규)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